

순천시 특정 수의계약 특혜의혹

경쟁자 없이 1인 견적...총 28건·48억 규모 시 “법률 근거로 계약...법적 문제될 것 없어”

공무원이 배임 및 뇌물수수 등으로 구속되는 등 심각한 진통을 겪고 있는 순천시가 특정 단체와 업체에 대해 부당한 방법으로 과도한 수의계약을 몰아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5월 순천시 서면 판교지구 임대신설사업 4억여원을 1인 견적 서안을 제출받고 무리하게 도급을 결정하는 등 지난해부터 올 5월까지 28건 48억여원을 순천시신설조합이 아무런 사업 경쟁자 없이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시는 “금융 여신을 포함한 자체사

업만으로는 경영 여건이 어려운 산림조합에 대해 관행적으로 산림조합 육성법에 따라 조합원을 보호하자는 차원과 전문성을 인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을 근거로 수의계약을 해졌다”며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관내 산림사업자 및 소규모 건설업체들은 순천시의 계약사수가 형평성에 어긋날 뿐 아니라 입찰에 참여할 기회마저 박탈하는 입찰 방해 행위라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게다가 전남도 종합감사에서 수의계약 한도를 넘는 계약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지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사무 담당자들이 수의계약의 한도금액이 넘는 계약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관행적으로 해왔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특히 지난 5월 15일 산림조합의 1인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이 체결된 서면 판교지구 임대 신설사업의 경우 도금액이 4억원이 넘는 데다 일반 산림 토목사업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산림조합이 1인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것이다.

이날에만 산림조합과 2건 6억여원에 이르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 순천시 관계자는 “부서 의견이 있었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조 1항 8호 ‘사’ 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을 근거로 적법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은 공사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이 없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1항 5호 ‘나’ 목에 따라 일반 건설업자들에게는 2,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림토목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A씨는 “일선 지자체가 발주하는 산림사업의 경우 8,000만원 이하의 전자견적을, 8,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의 전남도내 업체로 제한 입찰을 실시해야 하는데 일반 사업자들의 입찰 기회마저 박탈한 특혜 행정”이라며 순천시를 비난했다.

순천시 계약사무 관계자는 “특혜나 부정은 절대 있을 수 없고 다만 조합원 7,000명에 육박하는 순천시신설조합의 활성화와 전문성을 인정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해명했다.

/동부취재본부=김근중 기자



광양시는 최근 광양시청 접견실에서 기부릴레이 행사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양시 제공

광양보육재단 기부릴레이 뜨겁다

이동장협 930구좌·바르게살기운동협 154구좌 전달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1구좌 갖기 정기후원 기부릴레이 참여 열기가 뜨겁다. 광양시는 최근 광양시청 접견실에서 정현복 광양시장, 황재우 어린이보육재단 이사장, 강용재 상임이사, 릴레이참여기업·단체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릴레이 행사를 가졌다.

이번 기부릴레이를 통해 모집된 정기후원 구좌는 총 1,084구좌로 광양시이동장협의회(회장 정춘취)가 930구좌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회장 김영조)가 154구좌를 어린이보육재단에 전달했다.

이어 광양시이동장협의회는 서강기업(주)(김성택 사장), (사)한국농촌지도자광양시연합회(서현필 회장), 광양시청년연합회(서호성 회장)에 기부 릴레이 바통을 넘겼고, 광양시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는 한국생활개선광양시연합회(이선례 회장), 광양상공인회(송근배 회장)에 기부 릴레이 바통을 전달했다.

‘1세대 1구좌 갖기 운동’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사회 전체가 나서자는 의미로 시민사회단체연합(대표 박주식)이 최초 실시해 현재까지 16개 기관·단체와 시민 2,696명이 동참했다. 참여액은 5,473구좌로 월 1,600여만원이다.

기부릴레이에 동참하는 단체는 자체적으로 정기후원 구좌를 모집·완료해 다음 단체에 바통을 넘기는 기부 파도타기를 실시하며, 각계각층 시민들로부터 모인 정기후원은 지역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전역 투자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시민들께서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놀라운 참여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시가 보육 자치 역량을 갖춘 명품도시로 거듭나고 있다”며 “저출산과 아이양육에 대한 극복 의지를 뭉스 보여주시는 기업 및 단체장님들과 시민들께 감사드리다”고 말했다.

황재우 어린이보육재단 이사장은 “너와 나의 아이가 아닌 우리 아이로 키울시다”라는 보육재단의 슬로건은 시민들과 함께하며 진일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고 성장하는 시민의 재단이 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여수 문화도시 조성 상설공연 매주 토요일 10월 26일까지

여수시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 브랜드 상설공연을 오는 10월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순신광장에서 열린다. 지역 8개 문화예술 단체가 무형문화재와 전통 민속문화예술 공연을 펼친다.

첫 행사는 오는 15일 여수시문화원에서 전라좌수영 수군출정식과 강강술래 공연으로 시작된다. (사)뿌리페스티벌의 대북합주와 국악성악 등도 함께한다. 7월에는 도 문화재단 동편제 흥보가와 현천소동패놀이보존회의 공연도 만날 수 있다.

이밖에 여수생활문화원대의 약무호남시무곡가, 거문도뱃노래보존회의 거문도뱃노래 등 다양한 공연이 준비돼 있다.

/동부취재본부=곽재영 기자



뿌리페스티벌 공연 모습. /여수시 제공

보성 소정 성장순 선생 2주기 추모공연

16일 보성군문예회관

보성군이 오는 16일 오후 보성군문화예술회관에서 소정 성장순 선생 타계 2주기를 맞아 (사)보성소리보존회 주최로 추모 공연을 올린다.

소정 성장순 선생은 보성소리의 대맥을 잇는 최고의 여류명창으로서 문화훈장을 수여받고 국가무형문화재 제5호 심청가 예능보유자로서 많은 제자양성과 판소리 활성화에 지대한 공을 세운 판소리 명창이다. 이번 추모공연은 소정 성장순 선생의 넋을 기리고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해 국악인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한다.

특히, 무형문화재 제19호 동부민요 예능 보유자 박수만 명창의 상여소리와 계

현순 명부의 살풀이춤, 서영호 명인의 철현금 연주, 소정선생의 제자인 이복순, 이지선, 김병혜, 정선심, 김연옥, 송호진, 김보배가 육자배기와 흥타령을 부른다.

기악합주로 대금 정희원 명인, 아쟁 서영호 명인, 피리 오영미 명인, 가야금 정선옥 명인, 해금 김혜숙 명인이 신뎃노래와 동해바다를 연주하고, 박병주 명인이 진도 북놀이를 소정선생의 맥을 잇는 선미속령창이 판소리삼청가 한 대목을 소리한다.

고수 이명식(광주시립국극단상임단원), 사회 박병주(내드르대표), 총감독 및 기획 선미속(보성소리보존회이사장), 연출 및 무대감독 이시영(전남도립국악단수석단원)이 함께 한다.

/동부취재본부=백종두 기자

순천 낙안읍성 적벽가 연창회 열린다

순천 낙안읍성에서 오는 23일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적벽가 보유자인 국창운산 송순섭선생이 문화생들과 함께 ‘적벽가 연창회’를 개최한다.

이번 낙안읍성 연창회는 2003년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록된 판소리의 기반확대를 위한 것으로 문화재청, 순천시, 한국문화재단, 낙안읍성보존회 후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판소리 동편제 전승을 위해 이원용 문생의 ‘도원이 어대인고’를 시작으로 노민아, 왕서은, 신정례, 김예빈, 김양남, 윤채형, 박명연, 손홍주, 이정원, 이소연, 이현정, 유혜은 문생들과 함께 연창한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특히, 국창 송순섭선생의 ‘불 지르는 대목’으로 이번 행사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낙안읍성은 국창 송만갑 선생이 가야금 병창의 명인 오대석 선생과 만정 김소희 선생을 가르쳤던 유서 깊은 곳으로, 매년 전국의 국악인을 대상으로 전국국악대전과 전국 가야금 병창 경연대회가 펼쳐지는 곳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2022년 낙안읍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목표로 동편제 소리의 거장 국창 송만갑 선생의 출생지인 이곳에서 선생의 뜻을 기리고 우리의 판소리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경식 기자

광양 백운산 4대 계곡 7월 추천 관광지

동곡·성불·어치·금천 등 국내 최적 휴향 조건

광양 백운산 4대 계곡이 전남도 2019년 7월 ‘이 달의 추천 관광지’로 선정됐다. 하늘이 보이지 않을 만큼 울울창창한 원시림, 광양 백운산(1,222m)이 거느린 동곡·성불·어치·금천 등 4대 계곡은 더위와 사람관계에 지친 현대인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기 좋은 국내 최적 웰니스 여를 휴양지다. 백운산 정상과 따리봉 사이, 한계에서 발원해 동천을 거쳐 광양만으로 흘러드는 유흥 동곡계곡은 4대 계곡 중 가장 길다. 학사대와 용소, 선유대, 병암폭포 등 절경을 품고 있다.

도솔봉과 형제봉 사이에서 발원한 봉강 성불계곡은 깊고 맑은 물, 수려한 삼림, 기암괴석, 평평한 바위가 산재해 있어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낸다.

진상면 어치계곡은 여름철 한낮에도 이슬이 맺힐 만큼 시원한 오로대가 있으며, 구유 모형을 닮은 구시폭포는 심한 기쁨에도 마르지 않는다는 전설을 갖고 있는 신비한 곳이다.

다압면 금천계곡은 선녀가 내려와 베를 짜다는 옥녀봉에서 발원해 섬진강과 조화를 이루며 그림의 미학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다.

여기에 4대계곡을 따라 곳곳에서 닭뿔 불구이, 닭백숙, 염소구이, 잡채탕, 재첩회 및 재첩국 등 보양식까지 갖춰져 있어 건강한 여름을 맞 볼 수 있다.

광양시 이화읍 관광과장은 “전남에서 최고봉인 백운산의 4대 계곡은 가족과 맞으면 좋을 대표 웰니스 관광명소로, 계곡 주변에는 둘레길과 휴양림, 목재체험관, 이번 달 개장하는 백운산 자연치유숲과 음식 등이 즐비해 ‘엄, 치유, 건강, 맛’을 한꺼번에 책임질 수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광양시는 백운산 4대 계곡 관광명소화 사업의 하나로 봉강 성불계곡 정비에 완료한 데 이어 산수관광과 생태체험이 가능한 동곡계곡을 치유와 휴양의 가족 친화적 공간으로 조성 중이다.

/동부취재본부=우성진 기자

클릭! 고향 소식



고흥 자기혈관숫자 알기 이동건강센터 호응

고흥군은 지난 1월부터 마을경로당과 행사장 등을 찾아 자기혈관 숫자 알기 이동건강 센터를 운영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자기혈관 숫자 알기는 매년 9월 첫째



곡성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전문교육

곡성군은 최근 압록유원지에서 물놀이 익사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안전관리 요원 13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곡성119구조대 김동명 소



구례드림FC 장애인축구단 창단식

구례군장애인복지관은 최근 구례군공설 운동장 보조구장에서 김순호 군수를 비롯한 김승식 군의장 및 군의원,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해 구례드림FC 창단식 및 영·호남 친선경기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창단식 및 영·호남 친선경기는 나눔을 통해 더불어 사는 지역 스포츠 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단체인 한국JC 구례청년회의소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동부취재본부=김진석 기자